



돈암서원 (遯岩書院)

- 지정번호 : 사적 제383호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 시 대 : 1634년(인조 12)

돈암서원은 조선후기 기호학파의 본거지로 충남의 대표적인 유교문화유적이다.

이 서원은 1634년(인조 12)에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으며, 1658년(효종 9)에는 김집의 아들인 신독재 김집(金集)을 추향하였다. 1659년(효종 10), 1660년(현종 1) 두 차례 사액을 받았으며, 1688년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95년 우암 송시열(宋時烈)을 추향하였다.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에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서원 중 하나이다.

특히 보물 제1569호로 지정된 응도당(凝道堂)은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상의 도리 또는 진리가 이곳에 응집 또는 결집된다'는 뜻으로 이름 지어진 응도당은 돈암서원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던 강당으로, 기와에 쓰여 있는 명문으로 보아 163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중기 이후의 서원 강당 건물로는 보기 드물게 규모가 크고, 옛 건축 양식을 충실히 따라서 지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돈암서원을 비롯한 전국 9개 서원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 9월부터는 돈암서원 응도당 앞에서 강연과 음악회를 기본으로, 주변 유적답사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